

세상의 구주 예수

- 요한복음 4장 4-42절

김춘기 <<<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예수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일반적으로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그리고 중간지역인 사마리아가 그것이다. 이 세 지역 중 갈릴리는 예수의 공생애의 중심지역으로 나타난다. 이곳에서 예수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여기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거의 모든 사역들을 행하였다. 남쪽 유대 땅은 예수의 생애 마지막 기간을 보낸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 여기서 예수는 수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였다. 그와 비교할 때 사마리아는 예수의 사역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따라서 사마리아는 예수의 공생애 중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공관복음서에서 사마리아는 예수의 몇 가지 예증으로 나타날 뿐이다.¹⁾ 그러나 공관복음서와 상관이 없는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갈릴리와 유대를 왕래하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 4-42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이다.

본고에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

1) 공관복음서에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 10:5, 누가복음 9:52, 10:33, 17:16 정도이다. 예수가 사마리아에서 직접 활동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²⁾

1. 요한복음 4장 4-42절의 구조

먼저 4장 1-3절은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는 예수의 세례 주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성, 그리고 예수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의 사건은 4장 4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4장 31-37절은 그 주제가 생수가 아니라 먹는 양식이다. 이 점에서 이 구절은 사마리아 여인 사건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인다.³⁾ 그렇다면 4장 4-30절, 39-4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역사적 배경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128년 요한 힐카누스(John Hyrcanus)에 의하여 그리심 산에 있던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109년에 그들의 성소인 세겔이 파멸된 이후 유대인들에 의해 한 국가나 한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그들은 두 가지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았다. 하나는 그들이 앗수리아에 의하여 혼혈민족이 되었다는 점이다. 정결을 신앙의 최우선으로 하는 유대교 신앙으로 볼 때 가장 큰 부정은 혼합이었다. 그렇다면 피의 혼합인 혼혈은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누적된 혐오였다. 그것은 예

2) E. J. Wyckoff, "Jesus in Samaria (John 4:4-42): A Model for Cross-Cultural Ministry," *BTB* 35(2005), 89-98 참조.

스라 시대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허락을 받아 이미 그들만의 성전을 그리심 산에 세우고 그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시대의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적대의 관계 속에 있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4:9)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의 자존심은 대단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직계로 보았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가장 순수한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다른 부족은 혼합족속이지만 자신들은 야곱과 요셉의 직계라고 주장하였다.⁴⁾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야웨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겼으며 자신들의 성전이 레위지파의 계승을 받은 정통 계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토라만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그들의 메시아는 다윗계열이 아닌 모세계열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으로 믿고 기다렸다.⁵⁾

3. 본문에 대한 해석

서론(4:4-6)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된 사건을

-
- 3) C. H. Dodd, *Historical Tradition in the Fourth Gospel* (New York: Cambridge Uni. Press, 1963), 391-399. 다드는 여기서 4:35-38의 내용이 공관복음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독립적인 예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
- 4) R. Anderson, “Samaritans,”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5 (New York: Doubleday, 1992), 941.
- 5) R. E. Brown, *The Community of the Beloved Disciple* (New York: Paulist Press, 1979), 44.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통과는 단순히 예수의 일상적 행보는 아니었다. 요한복음은 이런 통과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기 위하여 ‘반드시’를 의미하는 희랍어 ‘데이’(dei)를 사용하고 있다(4:4). 개역개정판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뜻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다”이다. 흔히 ‘데이’는 신의 섭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⁶⁾ 그렇다면 예수의 사마리아 통과는 신의 섭리를 나타내는 사건인 것이다. 예수는 당시의 모든 민족적 장벽을 깨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깨뜨리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4:7-19)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문화나 타종교에 대한 예수의 선교 방법은 첫째, 선교는 전하는 예수의 입장이 아니라 전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선교의 문을 열고 있다. 이 여인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생수이다. 그것을 위하여 이 여인은 먼 곳에서 뜨거운 태양 빛에도 불구하고 이 샘물에 오게 되었다. 먼 거리와 태양과 다른 사람의 이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생수를 구하는 것이기에 그녀는 샘물을 찾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현재의 모든 관심은 생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수는 이 여인의 가장 큰 관심사인 생수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연관시키고 있다. 그것은 복음 선교는 받는 자의 상황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둘째, 예수는 대화라는 방법으로 여인과 만나고 있다. 예수가 여인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하고 효과적인

6) J. C. Beker, *The New Testament: A Thematic Introduc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93.

인 방법은 기적이라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생수를 원하는 여인에게 생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샘터를 알려 준다든가 아니면 샘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기적이나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대화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대화가 그 어떤 목회적 활동보다도 타문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수단”⁷⁾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생수라는 여인의 관심과 그것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려는 대화를 통하여 성(gender), 국적(nationality), 민족(race) 그리고 종교(religion) 등을 극복하고 있다.⁸⁾

흔히 타민족이나 타종교에 대한 선교의 방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 방법이 우선일 때가 종종 있다. 그들의 주 관심에 초점을 두다 보면 구체적인 해결의 방법이 가장 좋은 선교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여인은 물질적 생수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수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적, 종교적 장벽이 예수와 여인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10절에서 말하는 ‘선물(dorean)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방법이다. 선물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선물에는 민족이나 성이나 종교나 국적이 조건이 될 수 없다. 선물은 무조건적이며 은혜적인 사건이다. 예수는 여인에게 물질적 생수가 아닌 궁극적 생수는 여인이 생각하는 모든 장벽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은총은 사마리아인들의 민족적 자존심보다 큰 것이며(4:12), 여인이

7) Wyckoff, *op. cit.*, 92.

8) A. Culpepp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139.

원하는 실질적인 생수보다도 큰 것이다(4:14-15). 여인이 원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민족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민족과 종교와 현실적 욕구(생수), 그리고 여인이 지니고 있는 풀 수 없는 열등감(남편이 다섯)조차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데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생수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7-15절에서는 ‘물’이라는 주제로 여인의 마음을 연 다음 16-19절에서는 여인의 개인적인 삶의 내용을 통하여 여인에게 접근하고 있다. 전자는 야곱과 그의 우물이라는 과거라는 역사적 사건을 사용하였다면 후자는 여인의 삶이라는 현재적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과거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야곱보다 큰 인물로 인식하였고(4:12),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었다(4:19). 여인은 예수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까지 인식하는 전지성을 지닌 분으로 깨달았을 때(1:48 참조) 예수를 한 평범한 유대인(4:9)에서 선지자로 고백하게 된 것이다.

궁극적 관심과 그것을 얻는 방법(4:20-29)

이제 비로소 여인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단계는 아직 초보 단계이다. 그녀는 아직도 예수를 ‘주목하거나’(horan), ‘믿는’(pisteuein) 단계가 아닌 예수를 ‘보다’(theorein, 19절)라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⁹⁾ 여인의 신앙은 여전히 민족적 장벽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여인은 예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4:20)고 대답하고 있다. 예수는 여인의 존재 자체를 전환시키

9) W. Michaelis, “horao, eidon, blepo, opanomai, theomai, theoreo,” *TDNT* vol. 5. (MI: Eerdmanns, 1967), 361-364.

려 하고 있지만 여인은 아직도 예수를 한 사람의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와 ‘너희들’이라는 대명사 사용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너희’는 예수를 포함한 유대인을 말한다. 예수는 모든 벽을 깨는 새 종교를 말하고 있지만 여인은 여전히 사마리아와 유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장벽을 한 순간에 깨고 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수의 오심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전승들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그것을 ‘때’(hora)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4:23).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때를 의미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현현임으로 그가 말하는 지금이 모두가 기다리는 종말이라는 것이다(4:23).

다른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으로 통칭되어 왔다. 예를 들면 구원자, 보호자, 창조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에게 보다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명칭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이 ‘아버지’라는 칭호이다. 예수는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를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4:23). 이 명칭은 인격적인 동시에 관계적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그를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된다. 이 관계에는 어떤 민족, 종교, 가치, 성, 신분도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는 아버지가 되고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종말이 지금이라는 현재성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관계성으로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있다. 이런 현재성과 관계성을 요한복음은 ‘영’과 ‘진리’로 표현하고 있다. ‘영으로’(en pneumati)라는 표현은 아버지께 대한 예배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내적 태도로 드리는 것임을 뜻하고,¹⁰⁾ ‘진리로’(en aletheia)라는 표현도 ‘예

10) Wyckoff, *op. cit.*, 94.

11) R. Schnackenburg, *The Gospel of John*, vol 1 (New York: Herder & Herder, 1968), 437.

수를 믿는 믿음으로' 라는 의미이다.¹¹⁾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예수이기 때문이다.¹²⁾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인은 예수를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다(4:25). 여기서 비로소 여인은 예수를 알게 된 것이다(oida, 25절). 이런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에 머물지 않았다. 여인은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여인의 목적은 물을 길러 가는 것이지만 궁극을 믿게 된 여인은 더 이상 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내로 들어가서(4:28)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4:29).

이런 여인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켰다. 남편이 여럿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리던 여인이 한 순간에 변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증언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게 되었다. 이 때 여인의 선교 방법도 예수의 방법과 동일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것이다.¹³⁾ 이 말은 참된 믿음은 간접적 증언에 있지 않고 직접적 만남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유일한 증언은 “와서 보라”였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예수를 만나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에게 직접 나아가 그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어 직접 만나보라는 요구이다. 그것이 믿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12) 예수는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14:6)고 말하였다.

13) 이 방법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예수이다. 예수의 거처를 묻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는 “와서 보라”고 명령하였다(1:39). 이 방법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방법이며(1:46),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의 선교 방법이기도 하다.

회심과 제자직(4:39-42)

39-42절의 중심 단어는 ‘믿다’(pisteuein)이다. 이 단어는 이 단락에서 3번(39, 41, 42절) 나타난다. 이 말은 19절에서 여인이 예수를 선지자로 ‘보다’(theorein)와는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비로소 여인과 여인의 증언에 따라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먼저 여인의 증언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인의 증언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4:39)는 것이다. 이 증언에 의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어디까지나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믿음이다. 41절은 이미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이 원하는 믿음이다.

이들은 예수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고, 이틀 간 그들은 예수와 함께 지냈다. 요한복음은 제자의 조건으로 예수와 ‘함께 함’을 강조한다. 첫 번째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함으로 그들의 제자직을 시작하였는데¹⁴⁾ 사마리아인들도 예수와 함께 함으로 제자가 된 것이다.

결국 제자 되는 것은 여인의 증언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와 함께함이 필요하였다. 그것을 42절에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kosmos)이다.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생물의 세계, 더 나아가 모든 우주를 의미한다. 궁극적 신앙고백은 예

14) 1장 39절에 보면 예수의 첫 제자인 두 제자는 예수가 “와서 보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함께 거함”은 후에 보혜사를 통하여 완성되고 있다.

수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예수가 민족, 종교, 성, 신분의 벽을 깨는 참된 세상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4. 결론

사마리아 여인은 장벽 속에 갇혀 있었다. 그 장벽은 여성이라는 성, 사마리아인이라는 국적과 민족, 사마리아 신앙이라는 종교, 그리고 다섯 남편이 있다는 개인적인 열등감 등이다. 이런 장벽 때문에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여인에게 비친 예수는 기득권을 지닌 남성이고, 유대인이고, 유대신앙을 지닌 자였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다. 그는 도저히 허물 수 없다고 믿었던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였다. 그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화라는 외적 방법으로 이 장벽들을 뚫고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복음은 물질의 충족이라는 외적 사건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라는 내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때’라는 새로운 종말론으로 장벽을 극복하고 있다.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종말은 마지막 때라는 미래였다. 그 때가 되면 그녀가 꿈꾸는 세상이 되리라고 믿었다. 예수는 그 때가 지금임을 말하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현현인 ‘에고 에이미’(ego eimi, 나는 -이다)가 됨으로 예수 앞이 종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인이 꿈꾸는 새 세계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장벽을 극복하고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비인격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런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전이나 제도 혹

은 율법준수가 아니라 ‘영’ 과 ‘진리’ 로만 가능하다. 그것은 예수가 누구 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며, 또한 누구나, 어디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다.

사마리아는 자칫 복음서에서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주변 지역에 속하지만 예수는 바로 이곳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 어떻게 선포되어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모델을 몸소 보여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 김춘기 서울대학교(B.S.)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나와 미국 Chicago Theological Seminary(Th.M.)와 계명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현재 영남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있다.